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진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송호빈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 장흥군,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 1억원 확보

## 저소득층 소규모 개보수 통한 주거안정 기여

장흥군 특화시책인 '찾고, 이어주고, 감싸주는 협력복지 모델'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장흥군에서는 본 공모에 앞서 공무원, 이장,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는

Help day를 운영하고 있었다. Help day를 통해 발굴된 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는 긴급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연계 및 각종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사각지대로 발굴·지원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소규모 집수리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민간지원 연계만으로는 많은 대

상자들의 욕구를 해결 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금번 공모사업을 통해 최소 20가구 이상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정종순 군수는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적극 협조하여 집수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 대상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 하겠다"라고 전하였다. 장흥=송호빈 기자

# 진도군, 맞춤형 행정서비스 '이동군청' 서거차도서 운영

의료·복지, 사업 현장 방문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진도군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도면 서거차도에서 '이동군청'을 지난 21일 운영했다. 이·미용, 이동 세탁, 이동 목욕,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매일 1회씩 운영되고 있는 '이동군청'은 지난 4월 관매도를 시작으로 5월에는 서거차도를 방문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농기계 수리 등 봉사단체와 공직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이동진 진도군수가 직접 참여해 주민과의 대화, 사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불편 사항을 해소했다. 이동군청은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복지·현장 행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찾아가는 이동군청 운영으로 생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렸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강진군 '남도음식거리조성 사업' 최종 선정



강진군은 병영면의 '병영폐지불고기 거리'가 전남도 주관 '2019년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도음식거리조성사업'은 전남도에서 지역별 특화된 남도음식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

는 공모사업으로 음식거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도비 5억을 지원한다. 공모에 선정된 '병영폐지불고기 거리'는 병영면 병영성로 일원에 들어서게 된다. 음식 거리 명소화를 위하여 거리 상징물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후식 메뉴 및 상차림개발 등 위생 집객서비스 강화, 맞춤형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병영면의 역사, 문화 관광이 함께하는 남도음식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병영면은 전라병영성 복원, 하멜촌 조성 등 역사교육의 명소로 개발 중에 있다. 이에 병영폐지불고기거리와 연계를 통해 새다른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자연스럽게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가 어우러지게 된다. 허경자 관광과장은 "조선시대부터 '북'은 개성상인, '남'은 병영상인 말이 있었다. 그만큼 병영은 군사·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던 역사가 깊은 곳이다. 강진군은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병영폐지불고기를 지역 특화음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병영 역사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병영폐지불고기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영암군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기초반 모집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1일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3기 기초반 교육생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초반 교육은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2개월간 매주 월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가공 창업을 위한 기본 지식부터 식품 위생까지, 식품 가공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들을 위주로 편성되었다. 영암군에서는 기존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1기, 2기를 통해 약 5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수료생들은 하반기부터 농산물 가공 창

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가공 센터를 이용할 계획이다. 농산물 가공 교육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자가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며, 가공 창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달 말까지 농업기술센터(470-6596~7)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영암=조대호 기자

# 화순군, 지속가능한 농업 도모



화순군은 올해 필지별로 토양검정을 하고 3억 4000만 원을 들여 도암·이서·동북·동면 등 중심으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있다. 규산 6만6058포, 석회 2만2900포, 폐화석 1만358포를 공급했다. 개량제 살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민을 위해 공동살포비도 지원한다. 군은 올해 9000만 원(1포당 살포비 800원)을 확보하고 공동살포 대행자 49명을 선정했다. 농가가 살포대행자를 선임하면 공동살포를 지원하고 있다. 또, 군은 대공극량 증가와 토양 침식 억제 통해 토양의 통기성과 보수성을 높여 흙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 담양군 대전면, '마을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주민들 큰 호응

담양군 대전면이 지난 20일 최형주 마을변호사를 초청, 주민들의 생활민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시골도 귀환 및 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들과의 갈등, 사유 재산권행사의 권리 문제, 생활민원 등 다양한 갈등으로 법적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이다. 대전면에서도 최형주 마을변호사를 초청해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다른 마을청과 부지간의 주택 매매여부, 마을주거장 민원, 사인간의 소유권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는 그동안 생활민원으로 풀리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멀게만 느껴졌던 법 제도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여수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 16만 원 지원

여수시가 이달 27일부터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16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녹스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고열을 재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기기다. 일반보일러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약 10% 높아 난방비 절약 효과가 있고, 질소 산화물 배출량은 21% 수준에 불과해

친환경적이다. 시는 100가구를 선정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소재한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주와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다. 여수=송기홍 기자

신청은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여수시 기후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시청동 1길 23)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와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 사항은 기후환경과(☎ 659-3810)로 전화하면 된다. 여수=송기홍 기자

# 친환경 천연 창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장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